

[사회]

“타르 덮친 뒤 갯병 확산 김 피해조사 빨리 해달라”

양식어민들, 강무현 해수장관 간담회에서 촉구

“김이 썩어요. 지금 채취하지 않으면 갯병 때문에 수확을 할 수 없습니다.”

10일 오후 2시 30분, 신안군 지도읍 어의도. 김 양식 어민들은 이날 타르 피해 현장을 방문한 강무현 해양수산부장관과의 간담회에서 빠른 피해조사를 촉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30명의 김 양식

어민들은 어의도 주변 양식장의 김들은 이미 수확 적기인 10cm 이상 자라서 지금 채취하지 않으면 이물질이 낄 뿐만 아니라 타르 영향으로 갯병에 걸려 수확량도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양식 어민들의 이같은 호소는 정부 피해 조사 때 타르 피해 여부나 채취 수확량 등을 확인받지 않을 경우 피

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현행 규정 때문이다. 정부 중앙안전대책본부는 전남 서해안 타르피해 지역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10일부터 착수했다.

마을 이장 김정진(39)씨는 “갯병으로 김이 썩어가고 있다”면서 “법적 절차만 따지다 채취가 늦어지면 김이 다 녹아내려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타르가 일단 김에 묻으면 떨어지지 않을 뿐더러 상품성도 없다는 것을

잘 알지만 1년 동안 키운 김을 그냥 두고만 볼 수 없는 어민들은 날마다 바다에서 갖은 애를 쓰고 있다.

어민 이일성(63)씨는 칼바람이 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15ha에 달하는 양식장의 김밭을 며칠에 걸쳐 모두 뒤집어 놓았다. 김밭에 묻은 타르가 햇빛을 받으면 녹아 없어지거나 떨어지기를 바래서다.

이씨는 “김을 기르는데 작업인부를 7개월 가량 사용해 인건비만도 5천만 원은 돼요. 다 은행에서 빌린 건데...”라면서 “김을 수확하기는 틀렸고, 빌린 돈 이자라도 벌기 위해 방제작업을 하고 있어요”라고 한숨을 쉬었다.

어민 김형정(36)씨는 “올 김 수확 기간 동안 무안지역은 김 채취를 2번 정도 했어요. 하지만 신안지역은 단 한번도 못했습니다. 은행 이자, 인건비, 생활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라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 편입학 2.03대 1 경쟁

지난 9일 마감된 전남대학교 2008 학년도 편입학 시험 원서접수 결과 평균 경쟁률은 2.03대 1이었다.

일반편입은 381명(광주캠퍼스 247명, 여수캠퍼스 134명) 모집에 830명(2.18대 1)이, 학사편입은 245명(광주캠퍼스 193명, 여수캠퍼스 52명) 모집에 438명(1.79대 1)이 지원하는 등 모두 626명을 선발하는 편입학 시험에 1천268명이 원서를 접수했다.

일반편입에서는 신문방송학과가 1명 모집에 9명이 지원, 9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영어영문학과 7.5대 1(8명 모집·60명 지원), 수학교육과 6.67대 1(3명 모집·20명 지원), 경영학부 6.13대 1(23명 모집·141명 지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학사편입에는 6명을 모집한 약학부에 135명이 몰리면서 2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영어교육과 12대 1(2명 모집·24명 지원), 유아교육과 9대 1(1명 모집·9명 지원), 수학교육과·국어교육과 각각 7대 1(2명·모집·14명 지원) 등이 뒤를 이었다. 최종 합격자는 오는 2월 12일 발표된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타르 피해 현장 확인 차 10일 신안군 지도읍 어의도를 방문한 강무현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날 오후 어민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김 양식장의 타르 피해를 살펴보고 있다.
/위적량기자 jrwi@kwangju.co.kr

우산 챙기세요 1월 11일 (음 12월 4일) ◇전국날씨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며, 아침부터 비가 오겠다.

광주	흐리고 비	5~8℃
포항	흐리고 비	5~7℃
수도권	흐리고 비	6~10℃
안동	흐리고 비	5~9℃
대구	흐리고 비	3~7℃
대전	흐리고 비	5~9℃
충청	흐리고 비	5~9℃
전주	흐리고 비	6~10℃
경상	흐리고 비	3~7℃
강릉	흐리고 비	4~6℃
제주	흐리고 비	5~9℃
울릉도	흐리고 비	4~7℃
독도	흐리고 비	1~7℃
해운대	흐리고 비	1~7℃
속초	흐리고 비	6~8℃

서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0m
 서해중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5m
 남해서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0m
 남해중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5m
 목포 밀물 < 03:35 썰물 < 08:58
 여수 밀물 < 11:04 썰물 < 04:26

▲해돋이 07:41 ▲해질 17:39 ▲달돋이 09:29 ▲달질 20:26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2(토)	13(일)	14(월)	15(화)	16(수)	17(목)
날씨						
최저/최고	3/6	-2/4	-3/3	-4/3	-4/4	-3/5

오늘·내일 비... 휴일 강추위

11일 광주·전남지역에는 비가 내리겠으며, 주말인 12일부터는 비나 눈이 온 뒤 기온이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1일 광주·전남지역은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아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예상 강수량은 10~30mm 미만이다.
기상청은 또 “이날 오후부터는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높게 일겠고

서해남부 먼바다는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하는 선박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주말인 12일부터는 비나 눈이 온 후 점차 개겠으며, 휴일인 13일에는 구름이 많이 끼며 기온이 영하로 크게 떨어지겠다. 12일 아침 기온은 영상 3도로 예상되며 낮 최고기온은 6도, 13일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크게 떨어진 영하 2도로 예상해 춥겠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전교조 광주지부 이명박 당선인 교육정책 비판

전교조 광주지부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교육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광주지부는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고 과정에서 드러난 이명박 교육 정책은 소모적 입시경쟁 교육을 정부가 주도하면서 교육청·학교·교사에게 학업성취도의 성과에 대한 책무를 무는 방식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초·중·고교는 ‘입시 전쟁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율형 사립고 100곳, 기숙형 공립고 150곳, 마이스터고 50곳 등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대해 “자립형 사립고 확대를 위해 재단 전입금을 축소하는 방안이 실현되면 연간 2천만원 이상의 등록금을 학생

들이 부담해야 한다”며 “양극화 현상은 더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3단계 대학자율화”에 대해서는 “보고서 및 고교등급제 부활로 표준화 해체의 계층 간 교육 격차 심화가 예상된다”며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추진됐던 생활기록부 중심 전형이 유명무실해지고, 수능과 대학별고사가 중시되는 옛 입시로 퇴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교사 전문성 신장과 활동가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학교 현장의 변화를 위한 교육 현안 사업 ▲교육주체 간 만남과 소통을 통한 참교육실현 사업 ▲지역사회 연대와 지지를 위한 사업 등 2008년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광주 국제결혼 가정 위한 쉼터·연수

‘다문화 패밀리센터’ 건립 본격화

1,060억 투입 2012년 완공

다문화 가정의 요람이 될 ‘다문화 패밀리센터’ 건립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광주시는 10일 “국제결혼 증가 등으로 급증하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쉼터, 연수, 문화체험 등 지원 인프라 시설인 다문화 패밀리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시가 최근 확정된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센터는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부지 5만여㎡, 전체 면적 2만6천여㎡ 규모로 건립되며 국비 1천60억원이 투입돼 오는 2012년 완공된다.

주요 시설은 ▲종합지원관(이주여성에 대한 법률, 의료지원) ▲다문화 체험장 ▲언어소통관 ▲다문화 체험장 ▲남성교육관(국제결혼 남성에 대한 언어, 문화교육 지원)이다.
시는 센터가 건립되면 다문화 가족 교육연수와 문화체험 등 연인원 30여만명이 찾고 외국인들의 향수를 달랠 다문화 체험 공간에도 10만여명의 외국인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광주지역은 이주여성 2천500여명을 비롯, 외국인 8천80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국제결혼 여성은 10만명을 넘고 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 지하철역 인권·문화 공간으로

5·18 자료 전시 등 기념관 만들기로

광주 지하철역이 광주의 혼과 예술, 문학을 알리는 각종 기념관으로 조성된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오는 3월 광주 지하철 1호선의 완전 개통을 맞아 신설될 역에 ‘인권역’을 조성하고 예술인 기념관을 설치하는 등 인권·문화 자산을 활용한 기념관으로 만들 계획이다”고 10일 밝혔다.

공사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이번 개통되는 지하철 1호선 2구간 역인 김대중컨벤션센터 역을 ‘인권역’으로 조성, 5·18 민주광장 등 국내외 인권 관련 자료를 전시하기로 했다.

국립 양방울 선생의 기념관은 송정리역, 시인인 ‘용아’ 박용철 선생 기념관은 송정공원역에 조성, 지역을 대표하는 예술·문학인들의 삶과 예술을 기릴 계획이다.
각 역의 대합실 내에 패널리언이나, 독립 부스 등으로 전시할 기념관에는 기념 인물의 작품은 물론 생전의 사진과 유품 등이 전시된다.
광주 지하철은 지난 1996년 1·2구간으로 나눠 1호선이 확충됐으며 기존 개통 구간인 1구간(11.96km)에 이어 2구간(8.14km·6개역)이 3월 완전 개통될 예정이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소비자 만족도 1위!!

공기 실감 없게 3배 냉각력 하는 슬림 에어컨

30년 무관한 사생활 보호를 위한 슬림 에어컨

011-601-7701

(주)무등산업 (062) 371-7895

SONY New BRAVIA

고객감사축제·TV중고보상판매

소니는 항상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무엇보다 고객감사축제

- 삼성레드70인치형
- X3000/4400시리즈 : 10~20만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등가품을 무상 증정
- X2500시리즈 : 30만원 상당권 증정

또한, TV중고보상판매

- W4시리즈 : 90만원 상당의 TV보상
- X3000/3300시리즈 : 50만원 상당의 TV보상

062-522-2000